광야의 소리는 웹사이트 Voice.KumcABQ.com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26년



사진: 하얀 석고 모래언덕 (White Sands Hills Photo by Jangsook Kim 2026.10)

White Sands

해질무렵 석양에
눈 앞에 보이는 하얀 석고 모래들

카메라의 뷰 화인더로 보는 것보다
그냥
맨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 더 좋다

모래 언덕들이 하얗게 반사되다가
노란빛을 머금고는
해가 떨어지면서
금세 우유빛으로 변해버린다.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우주 공간이
포근하게
나를 감싸 안는다.

사진과 글 : 김장숙

차 례 (CONTENTS)

표지 사진과 글: White Sands | 김장숙 : 1
뉴멕시코한인회소식 : 한인회장 인사말 | 윤태자 : 2
지난 9-10 월의 주요 뉴스 -
대학에 들어온 공자 학원 전격 해체…파밍턴 인근의 기록적인 대 홍수, 미국 방문비자, 4명 중 1명 거부 당해 : 3
북 • 중 신압록강대교 12년 만에 공식 개통, HD현대 "미국에 조선소 건립"
프랑스 3주째 주말시위… 32만명 참가 : 4
미 중간선거 결과, 뉴멕시코 중간선거 결과, 2027년 사회보장 연금액 인상 : 5

칼럼 : 2026년 유럽 세미나를 마치고 | 김기천 : 6
칼럼 : 마라스므스 유감 | 나정용 : 7
수필 : 어지러운 세상 | 이정길 : 8

오늘의 말씀 : 선한 목자의 추격:
거친 인생 길에서 만난 은혜 | 추석근 : 9
수필 : 돌아갈 집이 있어 행복합니다 | 나정자 :10
성경 : 기독교윤리 (19) 산상수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 김민순 : 11
선교 : 신유의 은사를 강화하라 | 신경일 : 13
성지순례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보고(7)
이고니온: 갈라진 도시에서
담대히 전한 복음 | 김민순 : 14
여행안내 : 헤이메스 산, 로스 알라모스, 치마요
관광 여행 | 이경화 : 17
영어이야기 (47) :The Earth, the Moon, and the Sun
지구와 달과 태양 | 이상목 : 22
성경 퀴즈 : 24
뉴멕시코한인 교회/한인 업소 안내 : 25-28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제21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구나 했더니 성큼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기온차에 호흡기 질환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인회 소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20일 한국으로 나가 뉴멕시코 한인회장 자격으로 9월 26일 미주 총연의 밤 27일부터 30일까지 세계 한인회장 대회 30일 낮부터 세계 한인 총 연합회 행사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후 연이어 10월 3일까지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연천시등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 하였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포럼 행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어서 초대 받아서 참석하였습니다.
UN 피스코 사무총장의 발제에서 한글학교를 세운것이 이민 1세대의 역사적 공헌이였다면 AP 한국어를 정규 교육체계에 진입 시키는것은 현세대의 과제라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실천 역량과 대한민국 정부의 제도적 책무가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뉴 멕시코 한인회는 정부나 총 영사관에서 도움을 청할때 언제나 봉사하고 지원할것 입니다.
10월 25일 22대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있었습니다.
11월 1일 22대 한인회장 입후보자 공고를 합니다.입후보자는 21대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조영랑씨로 단독 출마입니다.
11월 28일 출마하신 조영랑 이사장에게 한인회장 당선증이 수여 될것입니다.
11월7일 한국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김치축제가 있습니다.한국학교와 코인의 협력으로 치루어지는 김치축제에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11월 29일 광복절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홍일송 강사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부분을 돌아보려 합니다.강연후 함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2월 12일 6.25 참전용사들을 보시고 보은행사를 합니다.
12월 19일 한인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에 인수인계를 하고 12월 말로 21대의 업무는 종료되고 새로운 22대의 한인회의 업무가 시작됩니다.19대부터 21대까지 한인회에서 일하며 지내는 동안 묵묵히 함께 하여준 임원진들 봉사자들께 지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역량부족을 느낄때도 있었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속에 한인회에서 봉사 할수 있었음은 저의 삶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것 입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새회장님이 새로운 바람으로 변화와 역동의 한인회를 이끌어 갈것입니다.
22대 한인회에 교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총연의 밤



세계한인 총연합회



원주시청방문



춘천시 방문

지난 9-10월 주요 뉴스

파밍턴 인근의 기록적인 대 홍수

뉴멕시코주 파밍턴 인근의 샌후안 강이 1909년의 기록을 넘어 최고 수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고, 샌후안 카운티 전역에서 수십 건의 수난 구조 활동과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파밍턴의 샌후안 강 수위는 약 4.3미터(14피트)까지 치솟아 1909년 기록보다 약 60센티미터(2피트) 더 높았다. 홍수로 인해 샌후안 카운티(파밍턴과 블룸필드 사이) 전역에서 약 1,500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어난 물과 진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참조:KRQE 13)



대학에 들어온 '공자학원' 전격 해체…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2026년 10월 23일 중국의 공자학원 관련 조직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미국 대학에서 축출 및 해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X)와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 및 관련 위장 조직들을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기관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수년 전 공자학원을 금지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고 30개 대학에 걸쳐 80개의 새로운 선전 조직이 다른 이름과 명분을 사용하지만, 목표는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Mandarin 참조(10.26,2026)

미국 방문비자, 4명 중 1명 거부 당해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 비자(B1·B2 비자) 거절률이 급증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방문 비자 4건 중 1건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의 방문 비자 거절률은 일본·독일·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은 물론, 미국이 적대국으로 분류하는 중국보다도 높았다.

외교부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의 최종 거절률은 24.73%로 2024년(14.97%)에 비해 9.76%포인트 증가했다. 2021~2024년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국의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14~18% 사이를 오갔는데, 지난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참조:중앙일보10.25, 조선일보 10.26)





북 • 중 신압록강대교 12년 만에 공식 개통

중국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0월 15일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했다. 신 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총 길이 3026m이다. 북한과 중국이 2010년 개통에 합의했고, 중국이 공사비 약 22억위안을 들여 2014년 완공했으나 완공 후에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개통이 12년이나 미뤄져 왔다

개통식이 있은지 9일째 되는 10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전용 벤츠(마이바흐) 리무진 차량을 타고 직접 왕복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했다.

김정은의 방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날짜이다. 10월 25일은 중국이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일'이다.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처음 교전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그는 "이번에 특별히 단둥을 찾은 것은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생명과 피를 바쳐 북한을 지원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고 항미원조 영웅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영원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단둥의 자동차 공장을 시찰했다.

한국의 일부 보도기사에서는 김정은의 단둥 방문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를 불식시키면서 두 강대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미국의 소리 VOA Koea는 단둥 방문 중, 김정은 위원장과 왕후닝 중국 전국



신압록강대교 (사진:Wiki/Ajew)

위원회 의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 최선희 북한 외무상등을 대동하고 신 압록강 대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과 함께 "북 중 러 밀착 속 한국, 미한동맹 관리 주력해야"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https://www.voakorea.com/a/experts-kju-102726/8215739.html

HD현대 "미국에 조선소 건립"…2029년 본격 가동 목표

HD현대와 키윗사 관계자들이 22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HD현대)

한국의 조선업 분야 대기업인 HD현대는 23일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현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인 키윗(Kiewit)사와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 KIEWIT SHIPBUILDING'(HD 키윗조선)으로 명명된 이 합작법인은 HD현대가 보유한 기술력과 조선소 운영 노하우에 키윗의 대규모 제작·건설 수행 능력을 결합,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HD현대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HD현대와 키윗은 지난 7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선박 공동건조와 선박용 블록 및 모듈 생산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HD키윗조선은 미국 멕시코만과 연결되는 기존 산업부지에 건립될 계획이며,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현대 측은 이번 사업이 기존 노후 조선소를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조선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 조선소가 미국 내 선박 건조 역량 확충과 조선 생태계 구축을 앞당기고,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HD키윗조선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상선 분야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미국 조선소에 선박 블록과 모듈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HD현대는 설명했습니다.



HD현대와 키윗사 관계자들이 22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출처: HD현대)

HD현대는 새 조선소가 본격 가동되면 현지 고용 인력이 약 3천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기술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2026.10.23)

프랑스 3주째 주말 시위… 32만명 참가

프랑스 전역에서 31일 생활비 상승과 교육 환경 악화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32만 명이 참가했으며, 수도 파리에서만 7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10월 17일 55만 명, 24일 41만 명에 비해 참가자는 줄었지만, 시위는 3주째 이어졌습니다.


파리의 학생시위 (사진:Wiki/FreCha)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파리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리옹과 툴루즈에서도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전국에 경찰 약 7만 명을 배치했으며, 31일 밤까지 779명을 체포했습니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치안 당국이 도심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했다며 폭력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9월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시작돼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로 확산됐습니다.
(VOA 뉴스 11.2.2026)

2027년 사회보장 연금액 인상

2027년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혜택이 공식 결정되었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2026년 10월 14일에 2027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생활비 조정분(COLA)을 3.6%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 인상률 (COLA): 3.6% 인상이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2.8%)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평균 수령액 변화: 은퇴 근로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기존 2,095달러에서 2,170달러로 약 75달러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장세 부과 소득 상한선 인상: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 근로소득 상한선이 올해 18만 4,5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만 2,3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생활비 조정(COLA; Cost-of-living adjustment)'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정한다. 이는 연금의 구매력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OLA는 당해 연도 3분기(7월~9월)의 평균 인플레이션 수치를 전년도 3분기 평균치와 비교하여 산출한다.

2026년 미 중간선거 결과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탈환하며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연방 상원은 전체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54석을 확보하며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44석, 잔여 의석 개표 중). 민주당은 공화당의 대표적 텃밭이었던 텍사스(1988년 이후 처음), 캔자스(1932년 이후 처음), 아이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 등 7개 격전지 중 6~7곳에서 승리하며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연방 하원: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수당 기준선(218석)을 가볍게 넘겨 최소 228석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예측치 약 255~258석 10월4일).

뉴멕시코주 중간선거 결과

2026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뉴멕시코주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수성하고 연방 상·하원 의석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주지사 선거



뎁 할랜드(Deb Haaland) 민주당 후보(러닝메이트 스테퍼니 가르시아 리처드)가 공화당의 그레그 헐(Gregg Hull)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할랜드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첫 원주민 출신 연방 내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화당의 래리 마커(Larry E. Marker) 후보를 득표율 63.3% 대 36.7%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

제1선거구:
멜러니 스탠즈버리(Melanie Ann Stansbury, 민주당) 당선 (54.1% 대 공화당 45.9%)



제2선거구:
게이브 바스케스(Gabe Vasquez, 민주당) 당선 (57.3% 대 공화당 42.7%)



제3선거구: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Teresa Leger Fernandez, 민주당) 당선 (62.5% 대 공화당 37.5%)



2026년 유럽 세미나를 마치고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목사님, 프랑스 쪽으로 가셨어요. 픽업하러 나오신 목사님의 음성이었다.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나는 분명히 스위스 바젤 공항에 내렸는데 프랑스로 넘어갔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스위스 바젤은 프랑스하고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공항 건물은 하나지만 반쪽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스위스 다른 한 쪽은 프랑스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과 도로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의 유럽 선교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유럽지방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교회에서는 물질로 후원하고 나는 재능기부를 하는 셈이었다. 출발부터 여의치 않았다. 월요일 새벽 6시부터 집을 나와 화요일 오후 일찍 도착해서 여유 있게 쉬다가 저녁을 먹고 첫 세미나를 시작할 참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바젤로 연결되는 예약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6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다. 오후 늦게 바젤에 도착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벌써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식사도 못하고 강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도 안내 목사님의 배려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사실 첫 강의는 스크린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기에 가지고 간 랩탑 컴퓨터와 스크린을 연결시키고, 필요한 칠판을 설치하느라 시작부터 시간이 늦어졌다. 사실 모두가 멀리서 와서 참석한 분들이지만 목회자로서 컴퓨터와 요즘 유행어인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강의에 피곤한 줄 모르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기에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첫 강의를 마쳤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식사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었다. 식사 중에 독일 한 지방에서 거의 20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오랜 동안 한 교회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목회하시면서 수시로 왔다 가야만 하는 교인들을 위한 목회의 어려움을 말씀하신다. 사실 본인은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고 한다. 독일이라는 참 괜찮은 나라에서 수돗물을 아껴써야 한다는 말이 검소함을 넘어서 안쓰럽기까지 했다. 세미나 장소는 스위스 바젤이다. 스위스 하면 아름다운 산과 농촌의 풍경이 상상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맥도날드 한 세트를 먹으려면 40달러를 내야 한다고 스위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미국에서 8달러면 먹을 수 있는 것을 5배나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세미나를 위해 빌린 호텔에는 에어컨이 없다. 방뿐만 아니라 세미나실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오후 강의 때에는 더워서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강의를 했다.

몇몇 교회와 개인 후원자에 의해 지원하는 2-3 만불의 비용은 세미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목회자들의 숙박과 식사 등 기본적인 것들 위해서 사용된다. 세미나 장소까지 오고 가는 교통비 비행기표 등은 참석자 본인들이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공개를 하면 지원자들이 이틀 안에 다 찬다고 한다. 비행기 표를 구입할 비용도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 이런 귀한 세미나를 위해서 일부분 협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기도와 개인 후원으로 돕고 있는 교우들에게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리고 싶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자세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직접 성경과 대면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교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며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첫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강의는 귀납적 성경공부와 프락시스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사실 귀납법적 성경공부 하나만으로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할 내용이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 소개만 하고 끝나게 되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내년에는 세미나 날짜를 하루 더 연장하자는 말도 나왔다.

나는 세미나를 마쳤는데 끝난 게 아니라 숙제를 더 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유럽지방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숙제였다. 세미나가 끝나면 모두가 자신의 사역지로 흩어지게 된다. 알버커키는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도시만 벗어나면 황량한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때로는 이곳에 돌아오면 나는 왠지 모르는 고립감을 느끼곤 한다. 유럽의 목회자들 역시 세미나가 끝나고 모두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 유럽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목회자로서 몇 안 되는 한인들과 담장이 없는 고립감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동질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숙제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

칼럼

마라스므스 유감



나정용
뉴져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내가 고아원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던 해는 1959년도 였습니다. 그때는 6.25전쟁 후 서울 거리 거리 마다 전쟁고아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어린 생명들을 수용할 고아원이 필요했는데 고아원을 돕고 있는 미국 감리교 선교기관에서 봉사하고 계신 Rev. Pinkston 선교사님 내외분이 우리 교회의 고등부 선생님이셨고 그의 권유를 좇아 그 고아원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며 사시던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었습니다.

그땐 거의 매일같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고아들이 경찰차에 실려 들어 왔고, 경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그들의 눈동자에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개심 내지는 반항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몇몇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마르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고, 그 처참한 현장은 저를 저으기 놀라게 했습니다. 간호원 선생님은 그들이 '마라스무스(Marasmus) 병'에 걸린 것 이라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이 병명! 도대체 그 병이 무슨 병이기에 - !

그간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충분한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소년원같은 감옥소도 드나드는 험악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며, 마음을 나눌 사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여 엄청난 정서적 결핍까지 겹쳐 기쁨이 있을 턱이 없고, 생기도 없이 시들시들 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병 이라고 간호원 선생님의 의학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고아원 안에 고등공민학교(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 6년 국민학교 과정을 1년만에 끝마치는 교육제도)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했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 못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점차 지쳐가기 시작 했습니다. 지쳐가는 선생님들 중 몇몇이 사임을 하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어 선생님이 그만 두시었습니다. 얼마 후에 수학 선생님이, 그리고 사회 선생님도 - . 물리를 가르치던 나는 그만 두는 교사들의 과목들을 대신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만 두시는 음악 선생님의 뒤를 이어 음악도 가르칠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음악 교사로 봉직하던 유 영애 선생님을 자원 봉사자로 보내 주시었습니다. 삭막하던 고아원 안에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들의 합창 소리와 함께 피아노 소리가 신비롭게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 합창단이 꾸려 졌습니다. 일선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도 하였습니다. 일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부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군 군용 전용 Bus를 타고 다녔습니다.

정작 큰일이 벌어 졌습니다. 서대문 유치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장 안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앞에서의 공연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레팥토리가 다 끝났을때 한 죄수가 양손을 철창 밖으로
흔들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함께 울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자 너도 나도 모두 양손을 철창 밖으로 내밀면서 기도를 요청하였고, 누가 시키지도 않했는데 어린 합창단원이 다 한사람씩 붙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라기 보다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가슴치며 회개하는 눈물 바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변 했습니다. 고아원 분위기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마라스무스에 걸린 불치병자들에

<12 페이지로 계속 >

수필

어지러운 세상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분명코 인류는 지금 격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대중도 현세를 난세 또는 다중 위기多衆危機로 여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온 세상에서 일상화되어 식량의 안보와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분쟁 격화, 미 · 중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냉전 이후 가장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급망 재편, 빈부의 심한 격차 등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커진다. 고도화된 AI 기술은 기회인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가짜 뉴스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시대마다 인류가 다소간의 난세를 거쳤음을 역사가 낱낱이 보여준다. 14세기의 흑사병이나 20세기 전반기의 1,2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 등은 인구 대비 인명 피해와 물질적 파괴가 훨씬 극심하여 절대적인 난세였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거나 비교적으로 쉽게 복구되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 시스템으로 얽혀 있는 지금의 난세는 지구촌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한 가지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불러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고, 기존의 경험이나 방식으로는 위기의 규모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과거의 풍요와 효율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특징적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분야별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생산량만을 늘리는 효율성 중심에서 충격에 버티고 빠르게 일어나는 탄력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식품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무한 경쟁과 이윤만을 좇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명과 공존을 살피는 미래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와 의식의 전환을 통해 인류 공통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 자신이 사는 세계가 복잡하고, 맥을 못추게 하며, 때때로 의기 소침하게 만드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소란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풀리며, 하루하루가 밝게 시작되던 과거의 황금 시대를 상상한다. 그것은 덧없는 희망이다. 어떤 시대에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더 큰 도전과 급속한 변화로 소란을 겪고는 했다.

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연의 섭리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것도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다. 주어진 것들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힘쓴다.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어려움에 날이 선 자세로 대하는 대신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대처하려고 한다. 자신이 선택한 길과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길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삶 아니던가.

그런 내가 요즈음 뒤죽박죽으로 엉망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가끔 느끼면서, 낙관적으로 살기가 어렵다. 지구는 엄청난 위험에 당면해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률조차 위협받는 것처럼 보인다.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터…. 우리가 지금 기관사도 없는 특별 급행 열차를 타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돌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네팔에서는 2026년 여름에 빙하가 무너져 내리며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그 재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지난해부터 나타나면서 갈수록 잦아지고 심해지는 기후의 변화가 초래하는 현상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생 인류가 등장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잇따르는 기후 재난을 마주하다 보니 '이러다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후는 끊임없이 변해 왔고, 지구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인류는 난세와 거대한 전환기를 거치며 새로운 제도와 기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 현재의 혼란 역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후가 끊임없이 변해 왔다는 사실이나 지구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이 기후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지구가 회복력을 지닌 건 사실이지만, 그 회복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작금의 사태는 기후의 격변에 대처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뚜렷이 나타낸다.

기후의 변화가 초래하는 재앙은 온실 가스의 배출이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인 나라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어떤 나라가 기후 위기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하는가? 가스의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 등이 배

<9 페이지로 계속 >

성경

선한 목자의 추격: 거친 인생 길에서 만난 은혜



추석근
산타페 한인 교회
담임목사

인생의 무게에 지칠 때, 혹은 문득 고요한 위로가 간절할 때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시편 23편을 품게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지만 묵직한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 울림을 주는 노래 중 하나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거친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돌보던 목동이었다.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방향을 분간하는 눈도 어두우며, 작은 소리에도 쉽게 겁을 먹는 무력한 존재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 연약한 양에 빗대었다. 비록 자신이 한때 한 나라의 왕이자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라도, 인생이라는 거친 들판 앞에서는 양처럼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평안하고 탄탄대로만 펼쳐진 삶의 약속으로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고난이 아예 없는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눈앞에 원수들이 버티고 서 있는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그 모든 자리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처절하고도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다.

목자는 양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는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남김없이 채운다는 뜻이 아니다. 목자의 시선 속에서, 지금 내게 가장 알맞고 필요한 은혜를 가장 선한 때에 공급받고 있기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온전한 만족을 뜻한다.

우리는 종종 삶의 활력이 바닥나고 지쳐버린 영혼을 마주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고백처럼, 다윗 역시 스스로를 강인한 존재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닿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대단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한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기어코 붙들어 매시고 인도하신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억울한 일과 원수 같은 시련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시는 대신,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존귀하게 세우신다. 우리의 넘치는 잔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흔적이 된다.

다윗의 인생 여정은 결국 마지막 고백으로 수렴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뒤에서 묵묵히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칠게 추격하여 끝내 우리를 붙들어 매는 강력한 사랑의 행위를 뜻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숨 쉬는 모든 평생 동안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쫓아와 붙든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 길을 지나고 있는가? 혹시 거친 골짜기에서 길을 잃은 듯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라. 당신의 삶에는 이미 선한 목자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의 신실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 붙들고 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숨결과 용기를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

어지러운 세상

<8 페이지에서 계속 >

상해야 한다는 운동이 2019년에 시작되었다. 국제 사법재판소는 2년 간의 심리 끝에 2025년 7월 국가가 기후 피해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누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근거로 국가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기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있고,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첨단 기술도 개발했다. 농업 기술과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알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모두가 나서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어 버리지 싶다. ■

수 필

돌아갈 집이 있어 행복합니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디지탈 AI 문명 시대 속에서 아나로그를 사수해 가느라 자존심 끌어안고 숨고르며 생존을 버텨가던 노춘들이 뉴욕 JFK 공항을 떠나 Italy Rome에 도착 한 것은 10월2일 아침. 다시 비행기를 바꿔타고 브린디시까지 한시간여. 그리고 또 다시 택시를 타고 남쪽으로 30여분 더 시골길을 달리니 목적지 Ostuni 였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예식을 올리겠으니 여기 오셔서 예식 주례를 부탁한다는 초청이어서 남편의 행차에 방울이 되어 함께 대서양을 횡단하며 세상구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Italy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옛날 1970년대초 설렁탕 한그릇에 100원, 시내버스 1회 승차권 10원 하던 때의 우리나라 시골풍경같다고나 할까.
잘 정리된 호텔 한 동뿐. 입구에는 왼만한 쟁반만한 잎들의 선인장들의 행렬!

아뿔싸! 혹이나 철안든 외래객이 겁없이 나풀댈세라 제법 큰 대못만한 가시들로 옷입고, 그 가장자리 둘레를 따라 달린 주먹만한 빠알간 열매들과 맨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가하면 '등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던가! 폭탄맞은듯 울퉁불퉁 퉁부러진, 두어 아름드리 되는 늙은 올리브 나무들이 들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평탄치 않은 고목들의 모양새는 평탄치 못하고 치열했던 긴 세월들을 상상해 보게 합니다. 고요만이 흐르는 장관입니다.

도대체 이 고목들이 여태껏 생존하느라 버텨온 시리고 아팠던 그 고단한 세월들을 무엇에다 비길수 있을까? 우리 살아가는 '생존' 그 범주 너머를 살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퉁부러진 너무나 처절한 모습에 함부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성한데라고는 하나도 없이, 복통할 사연이라도 있었던걸까? 폭파된 듯 터져버린 몸통들! 하나같이 가슴터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끌려나와 진액이 고름처럼 엉기고 사지가 찢겨 갈라진 모습들!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 머리 정수리에는 새파란 잎들이 무성하고 새 올리브들이 영글고 있었으니, 아! 이를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은 '핍박을 당하여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4:9)를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자 같다고나 할까?

돌연, 뜬금없이 앙리 샤르에르의 자전소설로 잘 알려진 '빠삐용' 의 첫 문장 '따귀를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다시 일어서는데 무려 13년이나 걸렸더라' 가 불쑥 떠 오릅니다. 벙어리같은 고목들 앞에서 입니다.

억울한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에 묶여 사느라 고생하며 별것 아닌것에도 '영혼'까지 흔들렸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여간 부끄러워 지는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때를 따라 ''따귀 한 대에 13년 이라!?' 반문하며 툭! 털어버릴수 있는 '은혜' 가 있었기에 귀중한 삶을 빼앗기지 않고 요만큼 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합니다.

미국 각지에서 온 신랑신부의 친구 70여명의 화려한 출연. 미끈한 등선이 깊숙히 파진 길다란 멋진 드레스와 보기만해도 든든한 정장의 젊은이들이 천천히 조용히 거니는 모습들은 제법 태초를 숨쉬어 보는듯 해 보여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세상을 뻔쩍거리게 하는 기술 테크닉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등에 매여 씨름하였고 거기에 매달렸던 가에서 적잖히 해방받고 사유받는듯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곳을 예식지로 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 출발하는 이들을 어찌 기계같은 디지털 세대라고만 단정지을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12 페이지로 계속 >

기독교윤리 (19) 산상수훈 마 6:9-13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거창고등학교 10계명

경남 거창에 위치한 미션스쿨 거창고등학교에는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1-제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과는 정반대입니다.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2.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루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종종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동안에 그곳에 앉아 있으라 명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며, 홀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토록 놀라고 답답하고 고민으로 죽게 되었을 지경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배웁니다.

3. 고통 중에도 습관을 좇은 기도

누가복음 22장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래된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그 고통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그분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이들에게는 기도가 아직 습관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40절)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 있음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종종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4.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간절함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잔은 죽음의 잔이며,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육신적으로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고통의 잔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육신의 고통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벌거벗기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과 수치스러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잔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의 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한 순간도 버림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은 아버지께 버림받으며 외면당하며 단절되신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만 가득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가득 담긴 기도입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담긴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

마라스므스 유감

<7 페이지에서 계속 >

불과 했었는데 - !
이들이 변 하다니!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상처를 싸 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상처가 깊었어도 주님의 위로의 역사는 계속 되었고, 드디어 회복 받은 아이들은 감옥소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웃을 일으켜 세울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고후 1:4)이 여과없이 통쾌하게 그대로 이루어 졌던
현장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은자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환란’ 이란것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로 그

돌아갈 집이 있어 행복합니다

<10 페이지에서 계속 >

오히려 아나로그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노춘들에게 더 찐득하게 붙어 있었던게 아니었던가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약점을 무기로 삼지 마시오. 더욱이 부부간에는 더그리하여야 할지니 …’ 를 당부하시는 노목사님의 old version message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때묻지 않은 젊은 전문인들!

우리 아나로그 노춘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수두룩한 이 젊은이들과 헤어져 우리는 다시 Rome으로 갑니다. 자못 천년전쯤의 르네쌍스 시대가 살아있다는 바티칸궁 뮤지엄의 천정화와 콜로세움, 영화 ‘로마의 휴일’ 에 나오는 스패니쉬 계단의 오드리 헵번도 되어보기 위해 6시간을 가야 한다는 기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벌써 집이 그리워 집니다. 코끝엔 잘 익은 김치 냄새가 뱅뱅입니다.
다시 돌아갈 데가 있다는게 얼마나 큰 감사요 위로인지요. 여행에 서툴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려는 과욕으로 피곤할때도 많았지만, 어느때든 돌아갈수 있는 내 집있으니, 돌아가면 편히 쉴수있는 내 집있으니 넉넉히 견딜만 합니다. 잘 마치고 곧 돌아갈 것입니다. 곧!
할렐루야! ■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상고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기억한다’ 는 이 한마디 말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크신 위로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전에 없던 풍성한 감사절과 기쁜 성탄절을 맞이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Hallelujah! ■

선교

신유의 은사를 강화하라

Strengthen the gift of divine healing.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오늘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And in the church God has appointed first of all apostles, second prophets, third teachers, then workers of miracles, also those having gifts of healing, those able to help others, those with gifts of administration, and those speaking in different kinds of tongues.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신유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Divine Healing 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의 핵심 메시지(message)는, 첫째는 치유의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Gift of Holy Spirit)입니다. 셋째로 목적은 치유 사역자의 유명세가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안에 병고치는 은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 께서 사람을 통한 사역 (ministry)입니다. 병고치는 은사의 헬라어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χάρισμα 카리스마 은혜로 주어진 선물(gift) 이고 영어로는 Healing/cure 입니다 . 헬라어로는 ἰαμάων 이아마톤 입니다. 특이한 점은 헬라어에서 둘 다 복수형이란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에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것처럼 치유사역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Passage 혹은 Instrument) 이기 때문입니다 . 치유사역은 목사나 장로나 치유사역자에게 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빌립 집사 (사도행전 8:57) 평신도 아나니아 (행전 9:10~18)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신유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유 사역자에게 먼저 필요조건은 금식과 기도 (마가복음 9:29)로 성령충만 함으로 무장되어 병든 사람을 대할 때 마다 예수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긍휼(불쌍히 여김) (마태복음 14:14) 일 것입니다.

4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마9:35)은 가르치고 (Teaching) 복음을 전파하고 (Preaching) 병을 고치시는 (Healing) 사역 이었습니다.

세가지 사역 중에서 신유 사역이 절반 이상인 것은 복음(gospel)을 전파 하시기 전에 온갖 병에 고통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과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짐으로 병든 자를 대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유사역에서 7가지 명심할 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1. 병든 자를 정죄 하지 말라, 믿음이 없어서 라 하지마라.
2. 자기과시를 말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3. 신유의 은사를 돈과 거래 하지 말라 (행 8:18-23)
4. 과장된 간증을 말라. 확인되지 않는 치유를 기적이라 하지 말라
5. 의학적 치료 중단 요구 (약을 다 끊어라) 하지 말라
6.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 단정치 말라.
7. 사역자를 우상화 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병 든 자 들에게 치유사역 행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뉴멕시코 신경일 목사

What is the divine healing? According to Exodus 15:26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Also, Mattew 9:35 Jesus' ministry has three: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Divine healing ministry had more than half. I had myself healing ministry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main hospital for more than 10 years, as a chaplain. To do the healing ministry effectively with fasting & prayer, we must have Christ's love, compassion and mind of humility.

According to 1 John 3:18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We are living now in the End Times;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re are so many, many sick people with hurts.

There is no Lord in their hearts.

What a sad thing they perish in this world without knowing Jesus, our Savior. Second coming of Jesus is very imminent. What shall we do now.

We must prepare to meet our Lord Jesus and unite with Him to be "Rapture Bride"! Halleluiah.

May God Bless you

Pastor shin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보고(7)

이고니온: 갈라진 도시에서 담대히 전한 복음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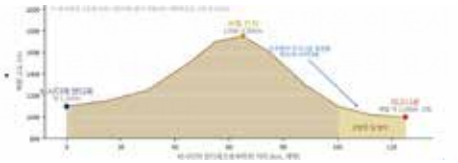
1. 서론: 세바스테 가도를 따라 만난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시작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목도한 선교팀은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 회당에서 첫 설교와 이방인 선교의 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두 사도는 결국 그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행 13:50-51).

두 사도는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로마의 군용 도로 세바스테 가도(Via Sebaste)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국의 통치를 위해 닦인 이 길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125km, 길을 따라 걸으면 약 180km에 이르는 그 여정 끝에서 두 사도가 만난 도시가 고원 도시 이고니온(Iconium)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고니온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기록된 복음 사역과 그 유산을 살펴봅니다.

2. 이고니온의 지리적 입지와 역사적 위상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남부 중앙, 루가오니아 고원 한복판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해발 약 1,100m)에서 오는 여행자는 해발 1,500~1,800m의 서쪽 산지를 넘은 뒤, 해발 약 1,000~1,150m 고원에 끝없이 펼쳐진 이고니온 평원을 한눈에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 평야는 워낙 넓어 이곳에서 나는 밀로 튀르키예 전체가 1년을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 곡창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여정〉

이고니온의 지명은 헬라어 '에이콘(Eikon, 형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세우스가 가져온 메두사의 '형상'이라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대홍수 뒤 프로메테우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려고



〈제1차 전도여행 여정〉



〈콘야 도심 전경: 오늘날의 이고니온〉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은 BC 3천 년경부터 사람이 살아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앞의 전설과 이어지는 '대홍수 이후 첫 번째로 세워진 도시'라는 전승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브루기아인의 정착지로 시작해 알렉산더 대왕 이후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거치며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고, BC 25년 로마 속주 갈라디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직후 아우구스투스는 이곳에 로마 식민도시를 세웠는데, 기존의 헬라 도시(polis)도 그 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약 AD 135년) 식민도시가 헬라 도시를 흡수하기까지 로마 식민 공동체와 헬라 시민 공동체가 나란히 존재하는 '이중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찾아왔을 무렵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을 딴 '글라우디고니온(Claudiconium)'으로 불릴 만큼 로마와 긴밀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고니온은 인구 150만 명(콘야주 전체 2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콘야(Konya)로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3. 탐사 쟁점: 이고니온은 브루기아인가, 루가오니아인가?

누가는 두 사도가 이고니온을 떠나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고 기록합니다(행 14:6). 이 표현은 이고니온 자체는 루가오니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여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이 쟁점을 풀려면 이고니온의 소속을 세 층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루가오니아 고원의 중심이었고, 행정적으로는 로마 속주 갈라디아에 속했지만, 문화적, 민족적으로 주민들은 스스로를 브루기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랫동안 브루기아와 루가오니아를 잇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오래된 증언들과 일치합니다. BC 401년 헬라 장군 크세노폰은 '아나바시스'에서 이고니온을 '브루기아의 마지막 도시'라 불렀고, 2세기 로마에서 순교자 유스티노와 함께 순교한 히에락스는 자신이 '브루기아의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W. M. Ramsay)는 이러한 기록과 현지 비문을 근거로, 누가의 미묘한 지명 구분이 1세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이고니온은 사도행전의 역사적 정확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유대인 회당 사역과 갈라진 도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라는 확신 때문이었고, 회당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약을 배우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열매가 맺혔습니다(행 14: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언된 이방인 선교의 전환이 이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믿는 공동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행 14:2). 원문은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영어 성경 NRSV는 이를 '마음에 독을 넣었다(poisoned their minds)'

고 옮겼습니다. 안디옥의 반대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면(행 13:45), 이고니온의 반대자들은 여론을 선동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대 속에서도 두 사도는 서둘러 떠나지 않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으며, 주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행 14:3). '담대히'와 '표적과 기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박해 때 드린 기도(행 4:29-30)의 바로 그 단어들로, 이고니온의 사역은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4:4-7)

말씀은 결국 도시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사도'라고 부른 곳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점입니다(행 14:4, 14). 반대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로마 식민 공동체와 헬라 도시가 공존하던 이 도시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두 사도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성 밖으로 내쫓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음을 생각하면 그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함께 대적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대적한 일을 노래한 시편 2편 2절(행 4:26)을 떠올리게 하며, 사도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두 사도는 음모를 피해 루가오니아로 갔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14:7). 박해는 복음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 도시로 밀어 보냈습니다.

5. 이고니온이 남긴 유산

두 사도는 1차 여행의 귀환 길에 돌로 치려던 음모를 피해 떠났던 이고니온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하며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행 14:21-23). 여기서 '겪어야 할 것'으로 옮긴 헬라어 '데이(dei)'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그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고니온 교회는 자라났고,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행 16:2)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곳을 다시 찾았을 가능성이 높으며(행 18:23), 남갈라디아설에 따르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박해와 그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딤후 3:11).

이고니온은 초대교회의 기억 속에서도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2세기에 기록된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고니온의 귀족 여인 테클라의 이야기를 전하며, 바울의 용모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남겼습니다. '키가 작고 눈썹은 맞붙었고 거의 대머리에 안짱다리였으나, 은혜가 충만하여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았다.' 정경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보여 주는 소중한 증언입니다.

AD 232년에는 이곳에서 소아시아 감독들의 종교회의가 열렸고, 도시는 훗날 셀주크투르크의 수도이자 메블라나

<24 페이지로 계속 >



〈에베소 사도 바울의 동굴속의 사도 바울과 테클라〉

헤이메스 산, 로스 알라모스, 치마요 관광 여행



이경화
알버커키감리교회
장로

지난 10월17일 시니어 가을 소풍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헤이메스 산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푸에블로 원주민의 역사와 스페인에 속했던 때에 지어진 치마요 교회, 미국의 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 촛점을 둔 여행이였습니다.
여행을 함께 하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께서 헤이메스 산, 로스알라모스, 치마요를 지상(紙上)에서 관광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행안내에 사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충하여 관광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출발 : 알버커키 감리교회 주차장
오늘 여행은 헤이메즈(Jemez)산의 단풍구경과 로스알라모스, 치마요를 방문하는 총 250마일 거리를 코치버스를 타고 한바퀴 돌아 약 8시간의 관광여행을 하는 하루가 시작 됐습니다. 출발 하기전에 헤레라(Herrera)코치버스를 운전해 주실 Manny씨를 소개하고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김밥과 간식을 준비하시고 오늘의 시니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 해오신 최신옥 집사님과 도와 주신 부원 여러 분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버스 여행중에는 이영규 집사의 사회로 퀴즈게임과 노래자랑도 준비되어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버스는 출발 했습니다.

2. 버나리요(Bernalillo)

저희 버스는 I-25를 벗어나 하이웨이 550번 도로로 들어서서 인구 9천명의 마을 버나리요를 지나가게 됩니다. 버스내의 시니어 여러분은 넌센스



퀴즈 게임으로 웃음을 터뜨리고 즐거워 했습니다. 지상(紙上)여행하시는 독자님께는 퀴즈 게임을 즐기실 수 없으니 대신 지나가고 있는 이곳 역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알버커키 교회에서 12마일 되는 지점에 있는 이 곳 Bernalillo 마을 이름은 스페인 어 지명이어서 두개의 'L'을 'ㄹ' 이 아닌 '야, 어,이,요' 계열의 발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버나릴로가 아닌 버나리요(Burnah-lee-yo)"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1300년 경부터 이곳에는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마을(쿠아우아 푸에블로, Kuaua Pueblo)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스펜인 사람이 처음 이곳에 온 것은 1540년으로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



헤이메스 푸에블로 가는 길에서는 이영규 집사님의 넌센스 퀴즈가 인기었습니다.

(Francisco Vázquez de Coronado)가 이끄는 군대가 바로 이곳에 와서 두 번의 겨울을 지내기 위해 주둔했습니다. 그때의 쿠아우아 푸에블로의 마을이 지금의 코로나도 사적지(Coronado Historic Site)로 불리는 고고학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흔히 '코로나도 루인(Ruins, 유적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백개의 방이 있는 유적과 잘 복원된 키바 벽화가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뉴멕시코 주민 60세 이상 시니어는 매주 수요일 무료 입장이 됩니다.(평일은 $7) 저희들의 여행 스캐줄에는 시간 관계상 들리지 않고 지나가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꼭 들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버날리요 북쪽은 산타아나 푸에블로 땅 입니다. 코로나도 루인 입구를 지나 산타아나 카지노 큰 건물 앞을 지나





쿠아우아 마을의 유적지, 코로나도 루인은 리오그란데 강가에 자리잡고 있다.

버스는 북서쪽으로 달렸습니다.

2. 지아 푸에블로(Zia Pueblo)

저희 버스는 버나리요를 지나 약 20 마일을 달려 지아 푸에블로 마을 입구를 지나 가게 됐습니다. 지아 푸에블로는



뉴멕시코 주의 깃발, 주기(州旗)를 생각하게 하는 푸에블로입니다. 뉴멕시코 주의 깃발이 노랑색 바탕에 빨간색 원에 4개의 막대기 선을 좌우, 상하로 부친 문양으로 된 것을 아시지요. 미국의 50개 주의 깃발을 보면 대부분 흰색과 파랑색을 포함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뉴멕시코 주의 깃발만이 유일하게 흰색과 파랑색을 포함하지 않은 독특한 노랑색 바탕에 빨간색을 사용한 독창적인 깃발입니다. 실제로 북미기학협회(NAVA)가 실시한 미국 주 깃발 디자인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할 만큼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920년 당시 뉴멕시코 깃발이 주의 독특한 성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에서 고고학자이며 의사였던 해리 메라 박사의 디자인이 최종 당선작으로 뽑혔습니다.

메라 박사는 산타페에서 19세기 지아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만든 고대 도자기(Zia Pot)를 보게 됩니다. 이 도자기에 그려져 있던 기하학적인 태양 상징의 문양을 보고 이를 깃발의 핵심으로 삼아서 공모전에 제출한것이 채택되어 1925년 3월부터 새로운 지금의 주기가 사용됐습니다.

지아 푸에블로의 문양의 중앙의 원(Circle)은 모든 빛의 근원이자 영원한 생명의 순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원에서 네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네 줄기씩의 광선은 다음과 같은 인생과 자연의 네 가지 요소를 상징합니다.

1. 방위: 동, 서, 남, 북
2.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3. 하루의 구간: 아침, 낮, 저녁, 밤
4. 삶의 단계: 아동, 청년, 중년, 노년
5. 인간의 의무: 강한 신체, 맑은 정신, 순수한 영혼, 타인에 대한 봉사

저희 버스는 산 이시드로(San Ysidro)라는 작은 마을에서 555번 도로를 벗어나 4번 도로로 들어가 헤이메스 프에블로 보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붉은 암석의 지층이 들어나기 시작합니다.

3. 헤이메스 푸에블로

알버커키에서 떠난지 약 1시간 걸려서 헤이메스 푸에블로(Pueblo of Jemez) 마을에 들어 왔습니다. (Jemez 는 "Hay-mess"로 발음합니다. 스페인어의 'J'는 'ㅈ'음이 아닌 'ㅎ' 으로 발음합니다.)

이 부족은 자신의 주거지를 '왈라토와(Walatowa)'라고 부르며, 이는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this is the plac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왈라토와 방문자 센터(Walatowa Visitor Center)는 헤이메스 푸에블로 부족(Pueblo of Jemez)이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부족의 비즈니스 운영 기관인 헤이메스 엔터프라이즈(Jemez Enterprise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자 센터는 1999년에 왈라토와 방문자 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후 2003년에는 센터 내에 헤이메스 부족의 역사와 토와(Towa) 문화를 소개하는 왈라토와 역사 박물관(Walatowa History Museum)이 추가로 개관하였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부속되어 있는 기념품 숍에서는 지역 부족민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헤이메스 붉은 도자기(Red Pottery), 터키석과 순은(Sterling Silver)으로 만든 인디언 주얼리, 직물 공예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헤이메스 푸에블로 부족 선조들은 스페인 인들이 처음 당도한 16세기(1540년 무렵) 초반때에는 계곡 전체에 흩어져 있던 선조들의 마을에 약 6,000명에서 8,0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푸에블로 문명권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4층 높이의 집도 지었고 마을 전체를 통틀어 방의 개수가 무려 3,000개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 정복자와 평화로운 관계였으나 차츰 종교적 억압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1680년에 이르러 이러한 적대감은 전 지역의 모든 푸에블로에 확대되어 '푸에블로 대반란(Great Pueblo Revolt)'으로 폭발했습니다. 여러 부족 연합으로 일으킨 대반란은 성공하여 스페인인들을 뉴멕시코 지역에서 엘파소 지역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1692년 스페인이 군대를 이끌





(위)헤이메스 푸에블로에 있는 왈라토와 방문자센터. 역사 박물관을 겸하고 있다.
(오른쪽) 1680년 푸에볼로 대반란을 주도한 포페석상과 헤이메스 조각가 프라구아

고 재침공하면서 격렬한 저항 전이 벌어졌고, 결국 산타 아나와 지아 푸에블로가 정복되었고 산타페가 다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가 디에고 데 바르가스 총독이 들어선 후 4년이 더 지나 1696년 최종적으로 헤메즈 푸에블로는 완전히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메사위의 요새에 살던 헤이메스 사람들은 강제로 계곡 밑으로 이주 당해 정착지를 재편하게 되었는데, 이때 형성된 통합 정착지가 바로 오늘날의 왈라토와(Walatowa) 마을입니다.
1680년 푸에블로 반란을 이끈 영웅은 오케이 오윙게(Ohkay Owingeh, 과거 명칭은 산후안 푸에블로) 출신의 포페(Popé, Popay)로서 그의 동상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세워져 있으며, 이 동상을 제작한 예술가는 헤이메스 푸에블로(Jemez Pueblo) 출신의 클리프 프라구아(Cliff Fragua) 입니다.
이 동상은 미국 역사와 원주민 문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고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은 각 주(State)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2명의 동상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포페 동상은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두 번째 동상으로 선정되어 2005년 9월 22일에 제막되었습니다.
포페 동상은 이 컬렉션에 추가된 100번째이자 마지막 동상이라는 역사적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컬렉션에 등록된 수많은 인물 중 미국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각한 조각가 클리프 프라구아(Cliff Fragua)는 테네시산 대리석 한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 약 2.1m(7피트) 높이의 이 거대한 석상을 완성했습니다.
석상을 보면 포페의 왼손은 매듭진 끈(Knotted Cord)을 들고 서 있는데 이는 포페가 각 푸에블로 부족에게 전달했던 반란 카운트 다운용 비밀 끈입니다. 매일 매듭을 하나씩 풀며 전 부족이 동시에 스페인에 맞서 일어날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방문자 센터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축소한 포페의 동상 모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많은 예술적인 전시물을 보았지만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 다소 유감스러웠습니다.


헤이메스 스프링스로 들어가는 계곡

4. 헤이메스 스프링스

왈라토와 방문자 센터 방문을 마치고 저희 버스는 약12마일 거리를 달려서 헤이메스 스프링스라는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1621년에 세워진 프란치스코회 선교 교회인 '산 호세 데 로스 헤이메스(San José de los Jemez)'의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스페인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지은 거대한 가톨릭 성당의 건물 잔해가 웅장하게 솟아 있습니다. 벽 두께만 약 2.4미터(8피트)로 거대하게 지었지만 원주민의 반발로 선교는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헤이메스 역사 유적지(Jemez Historic Site)는 주 정부에서 관리하며 수-일요일에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사적지와 같이 수요일에는 시니어 입장이 무료입니다. 시간 관계상 유적지는 바이패스 했습니다.
헤이메스 스프링스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온천 목욕 시설도 유명합니다. 인근의 유명한 피크닉 장소로 군함 뱃머리 같은 배틀쉽록이 있고 알버커키


뉴멕시코 4번 도로는 '헤이메스 마운틴 트레일' 국립 경관 도로로 지정된, 경치가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공립학교 오케스트라 프로그람의 학생들의 여름 한주일간 숙박하며 음악 연습을 하는 캠핑장소인 허밍버드 뮤직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부터 4번도로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여 개울을 끼고 북으로 가다가 126번도로를 만난후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로스 알라모스로 향합니다. 126 번도로로 가면 팬톤레이크(Fenton Lake) 호수를 만나고 근처에는 주립 양어장이 있습니다. 송어(Trout)를 키우는 시설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126번 도로는 쿠바(Cuba) 마을로 연결됩니다.
4번 도로는 레돈도 피크(Redondo Peak) 산 봉우리를 왼편에 두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아 바예스 칼데라 분지를 볼수있는 지점으로 갑니다. 경치좋은 시닉 드라이브(Scenic Drive), 경관도로 입니다.

5. 바예스 칼데라 국립 보존지(Valles Caldera National Preserve)

헤이메스 스프링스에서 약 22마일 되는 지점에 오면 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약 120만 년 전 거대한 초화산(Super-



바예스 칼데라 초원지대인 분지에서 시니어의 기념 사진 2026.10.17

volcano) 폭발과 붕괴로 거대한 화산 분지(칼데라 Caldera)가 생긴 곳입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화산 지형과 아름다운 고산 초원을 관광하기 좋은 바예 그란데(Valle Grande) 사인이 있는 Overlook지점에 잠시 정차하여 일행은 버스에서 내려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을 형성한 고대 화산 폭발은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Mount St. Helens) 화산 폭발의 500배 이상에 달하는 메가톤급 규모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후 지하의 용암 마그마 챔버에 공간이 생겨 대지가 무너지면서 지름 약 19~24km(12~15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분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덴버와 알버커키를 왕래하는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상공에서 이곳을 내려다 보면 원형 분지의 둥근 원의 큰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분지는 분지 가운데서 다시 솟아오른 여러 산들로 인해 시야가 막혀서 분지 전체의 반의 반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솟아오른 산중에서 가장 높은 레돈도 피크(Redondo Peak)는 해발 11,254 ft (3,430m)가 됩니다. 도로변의 우리가 서있는 지점의 고도는 2,712m 라고 합니다. 백두산 높이 2,744m와 비슷한 높이에 서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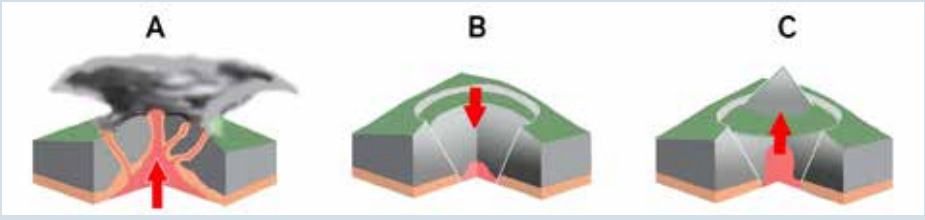


버스는 바예스 칼데라 전망지점에서 잠시 정차하였다. 배경에 보이는 가장 높은 산이 레돈도 피크이다.

이 곳은 동물들의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수천 마리의 엘크 무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야생동물 관찰지 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4번 도로는 반델리어 계곡을 내려보며 가다가 구불구불 돌며 로스 알라모스로 내려갑니다.

바예스 칼데라의 레돈도 피크 형성 경위



A. 거대한 화산 폭발로 약 95 입방 마일(400 입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마그마(magma 녹은 암석)와 화산재가 분출되었다.

B. 지하 마그마 챔버가 비워지면서 지층이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안쪽으로 무너져 19~24km의 원형 함몰지가 형성되었다.

C. 마그마 덩어리가 상승하여 칼데라 바닥의 중심부를 밀어 올려 3,430m에 달하는 거대한 용암 돔인 레돈도 피크를 형성했다.



헤이메스 산에서 내려가는 길.
먼 배경으로 상그레 데 크리스토 (Sangre de Cristos)산이 보인다. 산 이름은 스페인어로서 '그리스도의 붉은 피"라는 뜻이다.

7. 로스 알라모스 브래드버리 과학 박물관 (Bradbury Science Museum)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로 세워진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연구실적과 원자력 관련 과학상식을 보여주는 교육적 박물관입니다. 연구소 이름의 Bradbury는 연구소 소장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초대 소장



브래드버리 과학 박물관 정면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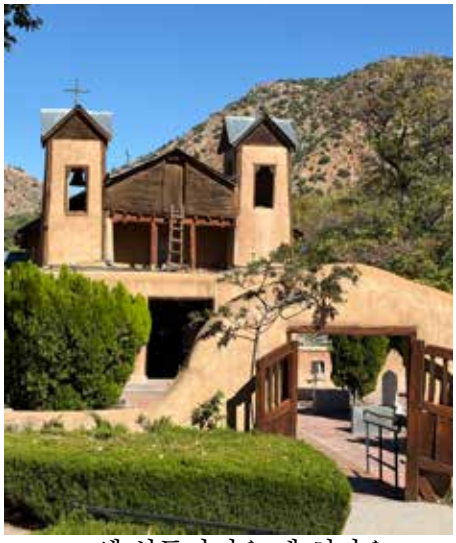


원자폭탄 Little Boy 모형. 뒤에 노랑색의 둥근 Fat Man의 일부가 보인다.

은 오펜하이머 였으며 동상이 박물관 안의 역사전시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전시된 군인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지휘한 장군으로 Major General Leslie Grove 소장입니다. 박물관에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두개의 대형 폭탄이 원자탄입니다. 둥그른 형태가 뚱뚱하다고 해서 Fat Man이란 이름이 붙었고 조금 작고 길죽한 모양은 Little Boy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은 뉴멕시코 화이트샌드에서 진행되었고 실험 이후 두 종류의 핵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투하를 결정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8월 9일에는 팻 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 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2차대전은 끝났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시의 약 7~8만 명이 8월 6일 중에 사망했고 전쟁 이후 1945년 말까지 방사능 피해로 인해 시민 약 9~14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는 3만명)
나가사키에 투하한 팻 맨 원자폭탄도 비슷한 7만 명 이상 주민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핵폭탄이 사용되는 재앙이 일어나지 말아야 갰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8. 치마요 성당

우리가 찾아간 치마요 성당의 공식 이름은 엘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El Santuario de Chimayó)로서 (산투아리오 (Santuario)는 "성소"라는 스페인어) 국립 사적지이기도 한 이 성당은 산타페에서 25마일(40km) 북쪽에 있습니다. 매년 약 30 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톨릭 순례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절 주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도보로 걸어서 오는 순례 행열이 메어집니다.
성당이 세워진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



엘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

다. 1810년 성 금요일 밤, 독실한 신자였던 돈 베르나르도 아베이타(Don Bernardo Abeyta)가 산타크루즈 강가 언덕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손으로 땅을 파보니, 그곳에서 6피트(약 1.8m) 크기의 커다란 목조 예수 십자가 상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베이타와 주민들은 이를 "이 자리에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13년, 아베이타는 십자가가 발견된 자리에 작은 개인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흙을 바르거나 먹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순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베이타는 가톨릭 교회의 승인을 받아 1816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약 1,400평방피트 규모의 아름다운 어도비(Adobe) 양식의 성당을 완공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당 내부의 제단 옆에는 십자가가 발견되었던 작은 구덩이인 '엘 포시토(El Pocito, 작은 우물)'라는 방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로를 막아놓고 밖에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엘 포시토 방에서 모래를 퍼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습니다. 이곳의 구덩이의 흙(Tierra Bendita)을

<23 페이지로 계속 >

영어이야기 (47)

The Earth, the Moon, and the Sun

지구와 달과 태양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볼때면, 인생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느낌이 가슴에 다가올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달을 우리는 올려다 봅니다. 동시에 달에서도 역시 지구를 올려다보지, 내려다 보지는 않습니다. 우주엔 위와 아래(up and down)도 없고, 중력(gravity)을 발밑에 두고 살기에, 우리 뇌가 별들은 항상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엔 지구중력이 있고, 달에는 달의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로 여행을 하면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면 지구는 머리위로 보이기 시작하고, 달을 향해 올라가지를 않고, 내려가는 상태로 됩니다. 중력이 밑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위아래는 중력이 발아래로 존재한다고 할때 느낀다는 뜻인데, 달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Lagrange point"라 하며, 위아래 기준점이 뒤바뀌는 지점입니다. 죽음이라는것도 기준점이 바뀌는 순간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다시피 지구는 태양주위를 하루에 한번 자전(rotation)하면서 약 365일마다 태양주위를 한바퀴 도는 공전(revolution)을 합니다. 달은 약 27.3일마다 지구주위를 한바퀴 도는데, 자전과 공전주기가 같기때문에 항상 달의 같은면만 보게됩니다. 달의 위상인 모양(보름달이나 초생달 같이)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는 공전하기에, 약 29.5일마다 지구를 한바퀴 돈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지구를 보면 한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뜨거나 지지않고 거의 정지해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지구표면에 북남미가 보이고 다음에 대서양이 보이는등 지구가 도는것을 달에서 관찰할수 있습니다. 달에서 보



는 지구는 달크기의 4배정도로 보입니다. 달의 궤도는 완전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며, 공전궤도면을 기준으로 달의 자전축은 약 6.7도, 지구의 공전궤도면을 기준으로 하면 약 1.5도 기울어져 있기때문에, 우리는 달의 표면을 50%가 아닌 59%쯤 지구에서 보게됩니다. 달의 공전궤도는 적도 (equator) 부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의 공전면에 거의 맞추어져 있기때문에, 달은 적도에 대해 약 ±28.5도 북쪽과 남쪽을 오갑니다. 그결과 달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 보입니다. 다만 모양이 바뀌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현달 (First quarter)은 호주에서는 180도 뒤집힌 하현달로 보입니다. 북반구 사람들이 상현달을 위로 쳐다볼때, 남반구 사람들도 동시에 같은 달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달의 위쪽이 호주사람들에게는 아래쪽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다리밑으로 숙여 물구나무서서 보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달의 공전(자전)주기를 4로 나누어, 달력에 음력을 표시한 것을 보면, 처음 시작(음력 초하루)은 New Moon, 반달(Half moon)인 상현달은 First quarter, 보름달은 Full Moon, 하현달은 Third quarter or Last quarte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초생달)은 Waxing crescent, 그믐달은 Waning crescent입니다. 예전엔 초생(初生)달이라 불렀는데, 요즈음은 순 우리말인 승을 사용하여("승"은 처음으로 올라오는의 뜻) 초승달로 부르는데, 초생달이 필자의 귀에는 더 정겹게 들립니다. 지구공전궤도면을 한자어로 황도면(黃道面)이라 하는데, 황색을 뜻하는 黃(황)은 태양을 가리키기에 황도는 "태양이 가는길"을 뜻합니다. 영어로 황도(黃道)는 Ecliptic, 황도면(지구공전 궤도면)은 Ecliptic plane이라고 합니다. 일식/월식이 영어로 Eclipse인데, 일식/월식이 일어날수있는 구간이 바로 지구공전 궤도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전궤도면을 Ecliptic plane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입니다. Ecliptic은 나타나야 할것이

나타나지않는, 즉 “to fail to appear”의 뜻입니다.

달(moon)과 달리, 북반구에서 보는 별자리와 남반구에서 보는 별자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북두칠성(Big Dipper)과 북극성(North Star)을 볼수있지만, 호주에서는 남십자성(Southern Cross)이 보입니다. 적도근처 별들인 Orion, Sirius(시리우스)는 계절이 맞으면 남/북반구 양쪽에서 다 볼수있습니다. 북극성은(실제로는 3개의 별이 상호중력으로 서로 돌고있지만, 우리눈에는 한개의 별로 보임) Polaris 또는 Pole Star라고도 합니다. 북극성은 Albuquerque에서는 약 35도 높이에 항상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극성이 지구 자전축이 하늘과 만나는 가상점인 북천극(North Celestial Pole)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항해사들이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Southern Cross)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축은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기때문에 12,000년 후에는(서기 13,727년) 거문고자리의 별인 직녀성 Vega(베가)가 지구자전축과 만나는 북천극 가까이 있게되어, Vega가 지금의 북극성 역할을 할것입니다.

달은 지구를 한바퀴 도는데 약 27.3일이 걸리지만, 달의 위상(lunar phase)인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양은, 즉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또는 초승달에서 다음 초승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29.5일입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동안, 지구는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력한달은 29일(항성월:恒星月) 또는 30일(삭망월:朔望月)입니다. 삭망월에서 삭(朔)은 “초하루 삭”으로 달이 새로 시작되는 (New Moon),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달과 관계되기에 글자에 달 월(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망(望)은 “바랄 망”으로, 희망(希望)이란 말에서 보듯, 망(望)도, 달 월(月)자가 들어가 있는것으로 보아, 원래는 가장 크고 밝게 잘보이는 보름달의 뜻에서, “멀리 바라보다 또는 기대하다”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이 27.3일마다 지구를 한바퀴 도는동안 지구도 태양주위를 조금 이동하기 때문에 달이 태양과 “같은 상대적인 위치, 즉 다시 보름달로 보이는 위치”에 오려면 2.2일을 더돌아야 하기때문에 29.5일마다(27.3+2.2 = 29.5일) 달의 모양은 반복합니다. 같은 이유로 지구도 1년에 365(365.24)번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366(366.24)번 돕니다. 하루24시간은, 오늘 태양이 머리정면에(낮 12시라 가정하면) 있을때부터, 다음날 태양이 똑같은 위치인 머리 바로 위에 왔을때를 하루 24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가 한바퀴 도는데는 24시간이 아니라 약 23시간 56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바퀴돌고 약 4분간(3분 56초) 더 돌아야 태양이 같은 위치에(머리위에) 옵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기 때문입니다. 경도로 표시하면, 지구가 한바퀴돌고 약 1도를 더 돌아야 합니다. 하루에 1도면 경도는 동경/서경 ±180도 이므로 , 일년에 총 360도를(한바퀴니까 거의 하루) 더 돕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3분 56초) x 365 = 86140초 = 23.92시간 ≈ 24시간 = 하루(1일), 그래서 실제 자전수는 하루가 더 많은 366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루 4분이 적은 항성일(Sidereal)을 사용하고, 우리들은 하루 24시간인 태양일(solar day)을 사용합니다. 태양일을 사용치 않으면, 한여름에 해가 9시에도 뜨게되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시계가 없는것보다 못한 상태가 됩니다. 태양(太陽)의 태(太)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Sun)는 태양(太陽), 달(Moon)은 태음(太陰)이라 하는데, 해는 양(陽), 달은 음(陰)인 셈입니다. 우리가 관용상 음력(lunar calendar)이라 말하는것은, 사실은 太陰太陽曆 (태음태양력), 즉 lunisolar calendar입니다. 달의 위상(모양)으로 달(月: month)을 정하면서도, 계절이 어긋나지 않도록 윤달을 넣어 태양의 움직임도 함께 맞추기 때문입니다. 관측기기도 변변치 않던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새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헤이메스산..관광여행

<21 페이지에서 계속 >

몸의 아픈 부위에 직접 바르거나,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며 치유를 기원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증하고 간 목발, 휠체어, 치유된 이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가 성당 옆방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한국인 신부로 세바스찬 리(이병권 신부)가 계십니다. 타주에 출타 중 이셔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9. 산타페

산타페는 이번 여행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버스는 Chopstix Oriental Food 식당 앞에 잠시 정차해서 준비해주신 점심 도시락을 픽업했습니다. 장세현 권사님 가정이 운영하는 이 Chopstix식당에서는 50 파운드 쌀 열 포대를 교회에 기증해 주셔서 버스에 실은 다음 피크닉 장소 Fort Marcy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8각정에서 도시락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4시경 알버커키로 향해 출발하여 오후 5시10분경 교회에 도착하여 하루의 즐거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

<16 페이지에서 계속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 이고니온

루미로 대표되는 이슬람 수피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도시 콘야가 고대 이고니온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남은 유적은 많지 않습니다. 도심의 알라엣딘 언덕(Alaeddin Tepesi)이 고대 이고니온의 아크로폴리스로, 그 위에는 4세기 이고니온의 감독 암필로키우스(재임 372~400년)의 이름을 딴 교회가 있었고, 지금 언덕 위의 알라엣딘 모스크는 고대 도시의 석재와 기둥을 재사용해 지었습니다. 콘야 고고학 박물관에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를 언급하는 비문이 있어 성경의 세 도시를 실물로 증언하며(1958년 발견된 더베 비문은 더베의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요나와 물고기, 사람 모양의 십자가가 새겨진 2세기 말 기독교 석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콘야 북서쪽 실레(Sille) 마을에는 잘 보존된 로마 다리와 함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327년 예루살렘 순례 길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성 헬레나 기념 교회'가 있고, 마을 위 절벽에는 수도사들의 동굴 거처와 예배실이 남아 있습니다. 실레 근처의 두 봉우리 가운데 하나는 예부터 '성 테클라 봉'으로 불렸고, 알라엣딘 언덕 남쪽의 성 바울 성당에는 지금도 테클라의 초상 벽화가 있어 이 땅에 이어진 신앙의 기억을 전합니다.

6. 결론: 갈라진 도시에서 오래 머문 믿음

탐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고니온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에 펼쳐진 농업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이자, 브루기아의 뿌리와 헬라 문화, 로마의 질서가 겹겹이 쌓인 도시였습니다. 누가가 남긴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라는 짧은 표현마저 당대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같은 말씀 앞에서 도시가 둘로 갈라지고 돌이 날아드는 위협 속에서도 오래 머물며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거부로 갈라진 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 밭의 차이였습니다(눅 8:15). 그리고 반대와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여 떠나기보다 주를 힘입어 오래 머무는 믿음이, 그 땅에 디모데를 칭찬하는 교회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시고 친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며, 모든 박해 가운데서 자기 종들을 건지십니다. ■

성경 퀴즈 (Bible Quiz)

〈성경 퀴즈는 뉴멕시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의 지난 두달중 주일예배 설교주제에서 사용된 성경본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질문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작성되었음)

(1)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 〉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세기 22:9-10)

(2)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 〉을 받으라 (디모데 후 1:8)

(3)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 〉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 1서 3:18)

(4)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 〉의 아들이라 (로마서 8:14)

(5)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이제 가라 내가 네 〈 〉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0-12)

(6)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 〉이시라 (요한1서 4:16)

(7)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 〉과 〈 〉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8)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 〉의 〈 〉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9)

(9)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 〉니라 (로마서 12:1)

(10)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23)

정 답

(1) 이삭 (2) 고난 (3)행함 (4)하나님 (5) 입 (6)사랑 (7) 마음, 생각 (8) 하나님, 사랑 (9)예배 (10)사랑

Korean Churches in NM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 오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웹사이트:www.galileeabq.com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추석근 목사 (714) 213-9627
주일예배 1부 시간 :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1:1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a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505)-503-9846
웹사이트: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ar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87105
(505) 247-2525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M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애라 차베스 Etta Chavez
Coldwel Banker Legacy
(505-720-2477)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전용배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식당 Restarant

꼬끼오 코리언 치킨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Website:kokioabqnm.com

김스 마켓
Kim's Oriental Market
(마켓 부속 식당 한식,중식)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아리랑 식당
Arirang Market
(마켓 부속 식당)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 (일식,한식,스시)
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UNM 앞)
ABQ (505)243-8089

아시안페어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Website:
asianpearabq.com

이찌반 식당
Ichiban Japanese Restaurant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ABQ (505-485-3737)
Website:ichibanabq.com

사꾸라 스시 엔드 그릴
Sakura Sushi and Grill
일식 한식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케이 스타일 키친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사무라이 그릴 엔드 스시바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Website:
www.abqsamurai.com

쇼건
Shogun (일식 스시)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Website:
www.shogunabq.com

한미 (한식 중식)
Hanmi Korean Chinese Fusion
2120 Juan Yabo Blvd. NE
ABQ NM 87112
(505-717-1287)

식품점 Korean Grocery

에이원 한국 식품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아리랑 오리엔탈 마켓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스 오리엔탈 마켓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약국

(Compounding Pharmacy)
Pharmacy on the Bosque
(김미정)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505-546-9217
(fax: 505-944-9320)
www.potbrx.com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com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제임스 박)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화원/원예 Nursery

오수나 너서리 (묘목,화초)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345-6644)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

회계사 ACC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al Clinic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 & 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로스루나스 Los Luna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SE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웹사이트:
dentistloslunas.com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

미용/건강 Beauty/Health

Atomy (atom美)
505-570-0092
최리안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쇼건 스테이크 하우스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6년 11/12월호 발행일 : 2026.11.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 : 이경화 배포 : 최신옥
발행처:알버커키감리교회 사회 문화부
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주소: VOICEofNM@gmail.com
Website: Voice.KumcABQ.com







광고 안내

후면표지는 비즈니스 유료광고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야의 소리의 이페이지에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voice.kumcabq.com/2026-0910/AD.html) 지원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메일 VOICEofNM@gmail.com 주소로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광야의소리 출판 비용의 상당부분은 지역사회 업소여러분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